

ECO Packaging Trends in Russia

## 러시아 친환경 포장 동향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 I . 러시아의 쓰레기 배출 현황

러시아에는 별도의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이 없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96%의 쓰레기가 매립되는데 그 중 단 4%만 재활용되며, 러시아의 상점에서는 연간 260억 개 이상의 비닐봉지가 사용된다고 한다.

Worldbank는 2012년에 이미 러시아 쓰레기 매립지의 65~70%가 찼을 것으로 추정하며, 폐기물 생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2025년까지 폐기물 수용 능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7,000만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주거지 인근에 매립되는데 특히 모스크바의 쓰레기 90%가 근교에 매립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말 러시아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 계속해서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 내 분리수거 시스템과 시설은 미진한 상태이다.

러시아 천연자원생태부 차관 Vladimir Loginov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재활용률은 국가 생태 프로젝트의 2024년 목표인 3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인 평균 1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 II . 러시아의 플라스틱 프리 움직임

#### 1. 모스크바의 쓰레기 재활용 캠페인

모스크바에서 2019년 8월 3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5일간 시행된 폐기물 수집 캠페인으로 가정 쓰레기와 영화 · 공연 · 전시 등의 문화티켓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모스크바 주택공공편의시설부 부시장인 Pyotr Biryukov는 “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가정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고 생태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이 세계에

[표 1] 모스크바의 쓰레기 재활용 캠페인의 수거 대상 폐기물

플라스틱	유리	종이 폐기물	알루미늄
최소 2kg(70~100병)	최소 2kg(20병)	최소 2kg	최소 1kg(50~60캔)

[자료 : artecolog.ru]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4,500명의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해 약 10톤의 가정용 쓰레기가 수거됐고 참가자의 절반은 이 캠페인을 통해 처음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했다고 응답했다.

## 2. 생수 및 음료 회사 Kalinov Rodnik의 재활용품 픽업 캠페인

러시아의 유명 생수 및 음료회사 Kalinov Rodnik의 온라인 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품 수거 캠페인으로 자사 제품의 빈 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단순하게 빈 병을 보관했다가 다음 배송 시에 배달원에게 전달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가 기대되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 모스크바의 쓰레기 재활용 캠페인 포스터



[자료 : artecolog.ru]

## Ⅲ. 러시아 소매점들의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

### 1. Auchan Retail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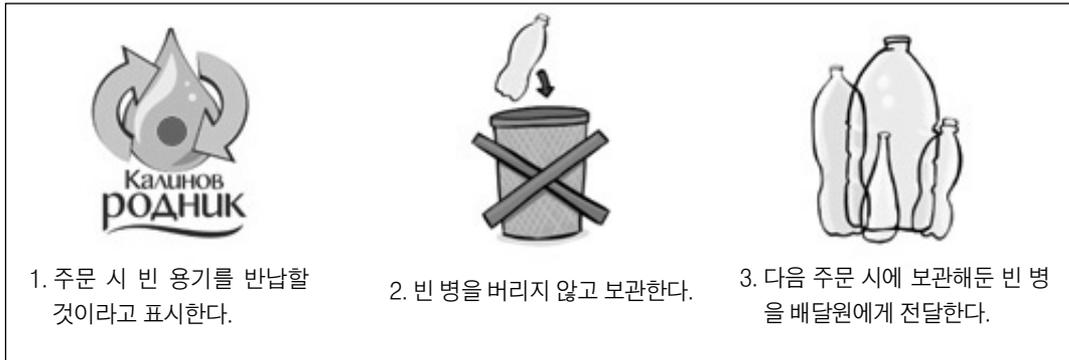
러시아의 유명 소매 체인점 Auchan은 플라스틱 봉투 소비를 줄이는 것이 그들의 주요 CSR 정책 중 하나라고 밝히고, 2017년 초부터 무상 비닐봉투 제공

[그림 2] Kalinov Rodnik의 재활용품 픽업 캠페인



[자료 : Delivery.fonteaqua.ru]

(그림 3) 재활용품 픽업 캠페인의 재활용 PET 및 유리병의 반납 방법



[자료 : Delivery.fonteaqua.ru,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번역]

을 중단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uchan Tyume은 “Let’s Save the Planet Together!”이 적힌 포스터를 내걸고 2019년 8월 24일부터 종이 및 재활용 봉투만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매장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담기 위한 친환경 끈 가방을 79루블에 시범 판매하고 있다.

Auchan의 Ms. Yulia는 “캠페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며 “고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사의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지지해주 기쁘다”라고 말했다.

## 2. 러시아 소매체인점 Vkusvill의 재활용품 반납 자판기

Vkusvill은 자사 제품의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품 반납 자판기를 도입했다.

(사진 1) Vkusvill의 재활용품 반납 자판기



[자료 : Vkusvill]

바코드를 스캔해 반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모스크바 9대, 모스크바 근교 2대, 상트페테르부르크 1대로 총 12대의 기계가 설치돼 있으며 매일 약 50개의 공병 및 캔이 반납되고 있다. 첫 번

재 설치된 매장에서는 한 달 만에 800kg 이상의 폐기물이 수집됐으며, 그중 플라스틱은 약 100kg을 차지했다.

### 3. X5 Retail Group과 Coca-Cola System의 재활용품 반납 자판기

러시아 최대 소매체인 X5와 코카콜라는 재활용품 반납 자판기(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장치)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자판기는 모든 제조업체의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캔을 수거하며, 빈 병 하나당 코카콜라 음료 1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는 모스크바의 Pyatyorochka 10곳에 설치됐으며,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앞으로의 시행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X5의 CEO Igor는 “환경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범 프로젝트의 시작은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 IV. 에코 패키징 사례

### 1. Kurgan 지역, 친환경 포장재 사업에 20억 달러 투자

2019년 Kurgan 지방 농업부는 Promrusskon LLC와 산업용 대마 재배 및 가공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 2019년 Kurgan 지방 농업부는 Promrusskon LLC와 산업용 대마 재배 및 가공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최대 10만 헥타르의 산업용 대마를 심고 대마 합성 재료로 생분해성 포장재를 제조할 계획이다.



[자료 : Promrusskon.com]

Promrusskon은 Dalmatovo 사회 및 경제 우선 개발 지역에 최대 10만 헥타르의 산업용 대마를 심고 대마 합성 재료로 생분해성 포장재를 제조할 계획이다.

대마 용지는 목재 용지보다 내구성이 강하며 친환경적이다. 친환경 대마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필기용 종이나 포장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수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Promrusskon의 프로젝트 매니저 Marina Dmitriyeva는 “5년 내로 연간

[사진 3] Labelexpo 2019에서 HP는 포장·변환 기계사인 Karlville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연포장재를 선보였다.



[자료 : Upakovano]

Karlville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연포장재를 선보였다. 이는 포장의 소형화, 폐기물의 최소화, 소수의 인원을 도입한 짧은 공정 시간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HP Indigo의 CEO인 Alon Bar Shani는 “두 회사의 협력이 포장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인 ‘지속가능한 포장’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4] 모스크바에 위치한 ‘Zero Waste Shop’은 포장되지 않은 식품 그대로를 파는 제로 폐기물 상점으로 Zero Waste를 추구하는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자료 : Zerowasteshop.moscow]

20만에서 200만 톤의 펄프 용량을 가진 생산 시설을 설립할 것”이라며 “특히 PET에 해당하는 생분해성 포장 원료(특히 내구성이 강한 합성물, 건설 자재, 종이, 직물, 비료, 바이오 연료 등)를 제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2. HP 와 Karlville의 지속가능한 포장

Labelexpo 2019에서 HP는 포장·변환 기계사인

## 3. 모스크바의 Zero Waste Shop

모스크바에 위치한 ‘Zero Waste Shop’은 포장되지 않은 식품 그대로를 파는 제로 폐기물 상점으로 Zero Waste를 추구하는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식료품은 특수 저울에 중량을 달아서 판매가 이뤄지며, 소비자들이 직접 용기를 가

저와서 구매하므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막고 포장비용이 없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급업체 또한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제품을 배송해야 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지역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몰 배송은 자연을 위해 최소한의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다.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진 자체 조립 박스를 통해 테이프 사용을 줄이고 테이프는 종이·고무의 접착 베이스 및 식물 추출 원료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또한 완충재는 파쇄지를 사용하며 영수증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다.

## V. 환경부담금 제도의 개정

2016년 러시아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 처리 표준은 제품에 따라 4~20%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제품 유형에 따라 규정된 환경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 산업 통상부는 재활용 재료로 만든 제품 제조업체에 세금 감면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폐지·폐유리·폐섬유 제품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고 재활용된 2차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VI. 결론

지난 3월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도 일회용품 남용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경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에코 패키징 제품이 더 인기를 끌 것으로 사료된다.

고정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은 “국내 기업에도 일회용품 및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내 에코 패키징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에코 패키징 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